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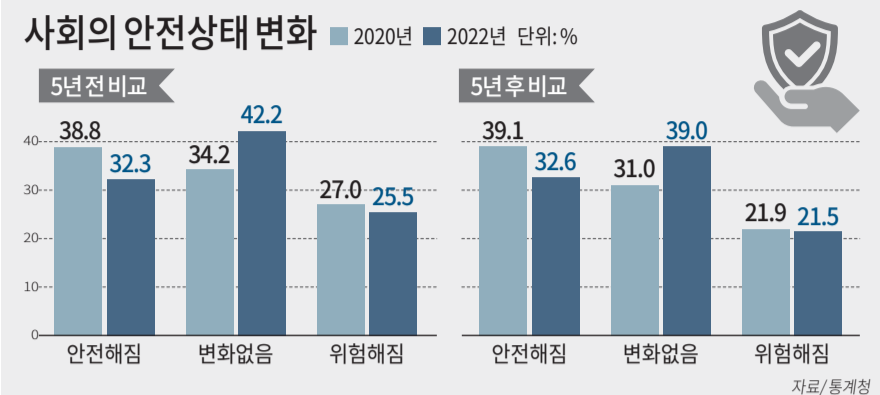
“사회 안전하다” 국민 3명 중 1명 뿐... ‘신종질병’ 가장 불안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

코로나 등 신종바이러스 불안 여전
성별에 따라 범죄발생 우려 차이
긴급상황시 행동요령 인지 비율 ↓

5년 전보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적었다. 국민 다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을 꼽아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33.3%



에 그쳤다.

5년 전보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2.3%, 향후 5년 후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2.6%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이태원 참사 전에 조사된 결과

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대형사고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21.0%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을 꼽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32.8%)과 비

교해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일상생활 중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느낀다고 답한 사람도 30.3%였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사람은 여성(35.1%)이 남성(25.5%)보다 많았다.

이어 불안요인으로 국가안보(14.5%), 범죄발생(13.9%), 경제적 위협(13.3%) 등이 꼽혔다.

특히, 여성은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밤에 길거리를 혼자 걸었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44.0%)이 남성(15.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감

소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96.7%로 2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지진, 화재 등 상황별 행동요령은 85.6%로 1.2%포인트,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은 61.0%로 0.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13세 이상 국민 중 64.6%는 생활환경 속 불안요소로 미세먼지를 꼽았다. 이어 기후변화(45.9%), 방사능(43.4%), 유해화학물질(42.5%) 순이었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환경 요소는 증감소음과 같은 소음·진동이 23.7%로 가장 많았고, 대기(17.6%), 토양(13.2%), 하천(12.8%) 순으로 꼽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5년간 배출한 車 온실가스, 국제기준 29% 초과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 실적 10인승 이하 평균 배출량 125.2g/km

지난 2020년 자동차 제조사 19곳에서 판매됐던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가 국제 기준에 29%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 13 곳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6~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실적을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2g/km로 기준(97g/km)을 29% 초과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한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배출가스 점검받는 승용·승합차. /뉴시스

관리 대상은 총중량 3.5t 미만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화물차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보다 적게 배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 안에 이월이나 거래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2016년 5곳에서 2020년 13곳으로 늘었다. 기아차와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포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은데다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기준을 2020년 97g/km에서 2030년 70g/km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각 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 확정·공개 전 절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 5만건 돌파

(1~9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월세 수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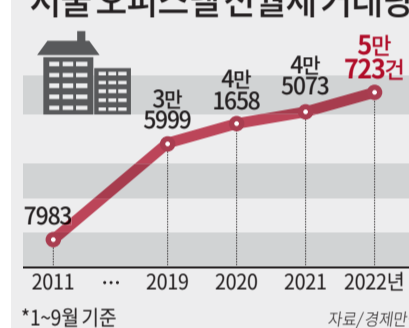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총 5만 723건(전세 2만3169건, 월세 2만7554건)으로 전년 대비(4만5073건) 12.5% 증가했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2만2575건이었지만, 올해 1~9월에는 2만7554건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의 경우 2만2498건에서 2만3169건으로 3.0%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오피스텔 월세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4309건)로 조사됐다. ▲송파구 2484건 ▲마포구 2419건 ▲영등포구 2158건 ▲강남구 1509건 ▲관악구 1462건 ▲구로구 1416건 ▲동대문구 1381건 ▲은평구 1273건 ▲금천구 1243건 ▲강동구 994건 ▲서초구 826건 등 순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오피스텔도 월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오피스텔을 찾는 1~2인 가구의 주거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시민중심
먹는 파주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DMZ 청정환경과 마사토에서 자란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주장단콩 축제

The 26th PAJU Jangdan Soybean Festival

반값택배
구입하신 농산물 택배비를 반값에 이용하세요

무료배달
구입하신 농산물은 주차장까지 무료로 옮겨드립니다

2022 11.25(금)~27(일)

파주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공원

주최_ 파주시 주관_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 NH농협 파주시지부 문의_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031)940-5281~3
문의사항은 031-940-5283으로 전화바랍니다. 장소_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역에서 행사장까지 무료셔틀버스 수시운행(09:00~18:00)